

# 재한 외국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박혜인  
(울산대학교)

## 《목 차》

1. 서론
2. 문화적응과 문화적응스트레스
3. 연구방법
  - 3.1 연구 설계
  - 3.2 연구 대상
4. 연구결과
  - 4.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4.2 문화사회학적 특성
5. 결론

<Abstract>

**Park Hye-in.** 2018. 1. 24. **A study on the Cultural Adaptation Stress of Foreigners in Korea**,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1, 53-76. This study aims to indicate factors influencing the cultural adaptation stress of a foreigner. The study was divided into two groups, using a similar living environment(regional, language, time), but could act as a cause of stress for foreigners who were returning to the purpose of entry. The group is a student of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and a study at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 in the

university. Summary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Nationality, gender, age, duration of residence, and the purpose of entry, etc. have been found to affect stress. However, this result is difficult to generalize because there is a limit of representative. However, it is confirmed that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re related to cultural adaptation stress.(University of Ulsan)

[Key words] cultural adaptation, cultural adaptation stres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1. 서론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1월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2,130,542명<sup>1)</sup>으로 이제 체류외국인은 한국사회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은 모두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로인해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이들을 이방인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한국에 공존하는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낯선 환경을 경험하는 체류외국인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그들 삶의 크고 작은 장애물로 작용한다. 국내 체류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미디어를 통해 그들의 모습을 그려내는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것은 한국사회가 세계화가 되고 있는 모습의 한 부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체류외국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과 이해는 그 속도를 같이하고 있지 않다.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대다수의 선주민들은 이주민들에게 동화와 한국문화에 대한 일방적인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그들을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가 아닌 동시대에 한국 사회를 함께 구성하는 구성원으로 바라

---

1) 출입국관리사무소 통계월보(2017.11.30)

보아야 한다.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체류외국인들이 자신이 성장한 문화를 떠나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의 스트레스가 있음을 한국인들도 이해하고 그들에게 닥친 장애물을 함께 뛰어넘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초기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는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시작되어 1980년대 이후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인 문제들에 대한 분석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대처방안에 관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00년대에 들어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재외 동포, 유학생, 난민,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의 집단별(김혜미·원서진·최선화 2011; 김희경 2010; 나임순 2006 등) 분류나 국가별·지역별 특성(김귀성·황지인 2009; 안준희·조정희 2011 등)에 따른 분류로 세분화되어 각 대상자들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에 대한 연구가 세밀화 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집단별 비교 연구가 소홀하였다. 이에 문제점을 느끼고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일정부분이 유사한 두 집단의 연구대상자들이 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원인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통계적 척도를 사용한 연구가 아니라 원인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둔 현상에 대한 기초자료로서의 연구임을 앞서 밝힌다.

## 2. 문화적응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은 두 집단 간에 이미 가지고 있던 문화 경향에 이차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개인과 집단이 직접적인 접촉을 지속하면서 발생하는 현상들이다(Berry 1990). 문화적응은 개인이 다양한 문화적 상황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능동적 과정이나 결과로 정의될 수 있으며, 특히 이주민에게 문화적응이란 문화적으로 상이한 배경을 지닌 이주 집단이 새로운 문화와 지속적으로 접촉함에 따라 생겨난 현상들을 지칭하는 포괄적 개념이다(박종철 외 1996, 최혜지 2009에서 재인용). 그러한 까닭에 이민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병

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적응의 과정에서 사회적인 기술을 획득하는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새로운 문화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접촉하며 통합적인 문화적응을 해낼 수 있을 때 성공적인 문화적응이 될 것이다.

문화 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사회적 지지, 의사소통 능력, 인구학적인 변인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같은 처지에 놓인 동포나 조력자가 되어 줄 현지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연구도 있다. 이것은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신체적인 건강과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언어는 해당 언어권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문화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단순한 여행이나 어학연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이주를 한 경우라면 한국어 숙달도가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클 것이다. 마지막으로 Jayasuriya, S & Fiedling(1992)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의 수준이 높을수록, 수입이 많을수록 문화적응을 잘 하고 스트레스도 적다고 하였다(이은정 2009:18 재인용).

이렇듯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자신에게 익숙한 문화와 새 문화와의 접촉과정에서 겪는 갈등이나 어려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은 문화적응을 겪는 개인들이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을 경험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Berry와 Annis(1974)는 문화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고통과 역기능을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로 정의하였다(최태일 2001 재인용).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이주자에게 발생하는 정신적 건강 문제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제안된 개념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문화적응과정 중 피할 수 없는 부분으로 부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피하기도 한다.

선행연구들에서 출신국가와 한국어 수준, 거주기간, 연령 등의 인구학적 특성들은 문화적응 유형과 관련 된다(임은미 외 2010). 태어나면서부터 자라온 자신의 문화가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하는 타문화에 대한 적응을 인구학적인 시각에서 탐구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새로운 문화로 적응하고자 할 때 개인 또는 집단이 경험하는 현상(Berry 1997)으로 다른 문화권으로 이주한 개인들이 다양한 변화로 인하여 겪는 문화적응은 개인들의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한유경 2009). 특히,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는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 사람이 오랫동안 속해 있던 문화를 벗어나 새로운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적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새로운 언어, 환경, 생활 방식, 음식에 적응하는 동안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 많은 체류외국인들은 내부적·외부적 또는 만성적·급성적인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데 환경적 변화, 지각된 차별, 정체성 혼란, 역할의 변화,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문화적 갈등은 체류외국인들이 겪는 스트레스의 한 예이다(Furnham & Shickh 1993: Shin 1993: 최태일 2001 재인용)

이홍직(2012)에 따르면 이주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인구사회학적 특성, 한국어 능력, 문화적응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적지지 요인의 네 요인으로 분류 정리하였다. 첫째, 개인의 성별, 연령, 국적, 결혼상태, 학력, 건강상태, 직장, 근무시간, 경제수준, 소득, 종교, 법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언어능력, 의사소통 수준 등이 영향을 미친다. 셋째,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에 있어서는 자국 문화 유지 정도, 현지문화 수용정도, 문화 정체성, 문화 이질감, 외상경험,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적대감,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 사회적 고립, 열등감, 불신수준 등이 영향을 미친다. 넷째, 사회적 신뢰, 사회활동, 사회적지지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최태일(2001)은 사회적 동물로서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들은 타인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 충족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 내에서 사회적 지지는 인간의 적응 및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를 통한 의지가 스트레스의 완충 효과가 있는 것이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 설계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유사한 두 집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요인을 확인하고 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문화 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사회적 지지, 의사소통 능력, 인구학적인 변인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사회적 지지를 받으면서 의사소통 능력이 유사한 대상자들이 인구학적인 변인들이 다를 경우에 어떤 부분이 문화적응의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모집단에게 질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한 뒤 분석하였다. 질문에 앞서 연구윤리를 설명하고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질문방법은 반구조화 방법으로 미리 준비한 질문지를 통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질문지는 한국어로 제공되었다. 연구자들에게는 익명성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문화적응과정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Sandhu & Asrababi(1994)가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질문지를 한국어로 번안·수정한 최명민 외 (2015: 431-432)의 내용을 재수정하여 제시하였다. 본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Likert식 5점 평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낮을수

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적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 자료에 대한 상관분석은 하지 않았으며, 총점 및 각 영역별 점수를 5점으로 표준화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질문지는 본고의 마지막에 첨부하였다.

### 3.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문화스트레스에 관해 울산시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23인을 대상으로 2017년 6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장소는 연구대상자에게 익숙한 장소인 교실에서 한국어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약 1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자는 같은 도시 내에서 거주하고 같은 기간 내에 살고 있는 제한 외국인이다.

이 연구대상은 두 집단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법무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학습자 11인과 지역 대학 내 한국어교육기관의 어학연수생 12인이었다. 언어적인 면에서 이들의 한국어 구사능력은 4급을 수료하고 5급 수업을 수강하는 학습자들로 한국어가 능숙한 편이며 한국문화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sup>2)</sup>. 그리고 사회적지지 부분에서는 두 집단 모두 조력자가 있다. A집단의 경우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면서 가족 및 지인들이 있고, B집단의 경우 대부분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같은 나라 친구들과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거나 매일 친구들과의 교류가 있으며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족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sup>3)</sup>>

\*A집단(사회통합프로그램 5급 학습자)

---

2)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TOPIK(한국어능력시험)의 주관처인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의 안내에 따르면 등급별 평가수준은 아래와 같다.

순번	국적	성별	나이	거주기간 (년) <sup>4)</sup>	동반가족	현재동거인	입국목적
A1	베트남	여	34	4.5	혼자		
A2	중국	여	44	3	부부	남편	결혼이민자
A3	중국	여	33	9	엄마	남편, 시 어머니	결혼이민자
A4	캄보디아	여	34	10		가족	결혼이민자
A5	러시아	여	35	15	혼자	가족	결혼이민자
A6	베트남	남	32	12	부인	부인	결혼이민자
A7	중국	남	41	20			재외동포
A8	중국	남	38	12	엄마	없음	재외동포
A9	캄보디아	남	32	5	아내, 딸		취업
A10	캄보디아	남	31	7	혼자		취업
A11	베트남	남	36	6	혼자	혼자	취업

등급	평가기준
4급	공공시설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뉴스, 신문 기사’ 중 평이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회적·추상적 소재를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자주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과 대표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문화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5급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소재에 관해서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공식적, 비공식적 맥락과 구어적, 문어적 맥락에 따라 언어를 적절히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3) 참여자들이 응답하지 않은 곳은 그대로 해당 칸을 비워두었다.

4) A집단은 거주기간이 ‘연(年)’ 단위지만 B 집단은 ‘개월(月)’ 단위로 그 기준이 다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한국에 온 기간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집단의 단위를 달리 기재하였다.

\*B집단(대학교 한국어학당 5급 학습자)

순번	국적	성별	나이	거주기간 (개월)	함께 온 가족	현재 동거인	입국 목적
B1	일본	여	21	4	없음	일본친구	유학 · 어학 연수
B2	일본	여	21	4	없음	일본친구	
B3	베트남	여	21	15	있음	사촌언니	
B4	베트남	여	21	15	있음	언니	
B5	중국	여	20	10	없음	중국친구	
B6	중국	여	22	4	없음	중국친구	
B7	중국	남	19	9	없음	중국친구	
B8	중국	남	21	8	없음	중국친구	
B9	중국	여	23	9	없음	중국친구	
B10	중국	남	19	10	있음	가족	
B11	중국	남	19	9	없음	중국친구	
B12	러시아	여	22	24	있음	가족	

앞서 설명하였듯이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적 지지를 받고 비슷한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지만 거주 목적이 확연하게 다르다. 먼저 A집단인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자들(A1~A11)의 평균 연령은 35.5세이고 거주기간은 약 9.4년이며 입국 목적은 취업, 결혼이민, 재외동포로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그에 반해 B집단인 대학 내 한국어교육기관 학습자들(B1~B12)의 평균 연령은 20.8세이고 이들은 거주기간은 약10개월이며 입국 목적은 유학·어학연수로 나타난다. 이들 대상자들은 연령, 거주기간, 목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는 문화적 스트레스의 내용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4. 결과

### 4.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일반적 특성	A집단		B집단	
	국적	중국	4명	중국
베트남		1명	베트남	2명
캄보디아		3명	일본	2명
러시아		1명	러시아	1명
합계		11명	합계	12명
성별	남자	5명	남자	4명
	여자	6명	여자	8명
나이	남자 평균	35세	남자 평균	19.5세
	여자 평균	36세	여자 평균	21.4세
	합계 평균	35.5세	합계 평균	20.8세
한국 거주기간	남자	8.4년	남자	9개월
	여자	8.3년	여자	10.7개월
	무응답	20년	무응답	-
	합계	9.4년	합계	10개월
(한국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유무	있다	5명	있다	4명
	없다	2명	없다	8명
	무응답	4명	무응답	-
현재 동거인	가족	5명	가족	4명
	친구	-	친구	8명
	없다	2명	없다	-
	무응답	4명	무응답	-
입국목적	취업	3명	유학· 어학연수	12명
	재외동포	2명		
	결혼이민	5명		
	기타	5명 (기재안함)		

먼저 본 연구에서 재한외국인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국적, 성별, 나이, 한국 거주기간, (한국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유무, 현재 동거인, 입국목적 등을 알아보았다.

두 집단은 연령, 거주기간, 가족유무, 동거인, 입국목적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A집단의 경우 B집단에 비해 평균 약15세 정도 나이가 많다. 연령의 폭이 큰 만큼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이 다르다. 이는 입국목적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A집단은 취업, 재외동포, 결혼 이민자 등으로 한국 거주 목적의 생계와 관련이 있다. 그에 비해 B집단은 모두 유학·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한국에서 거주한다. 즉, A집단은 자신 및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나, B집단은 가족의 지지를 받으며 공부를 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유형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 거주기간을 보면 A집단은 약 9.4년이지만 B집단은 약 10개월로 10배가량 차이가 난다. 그 이유는 A, B집단의 구성원의 특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두 집단은 모두 한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집단이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만난 A집단의 경우 한국에서 이미 장기거주를 했고 영주권 취득 등의 목적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sup>5)</sup>. 하지만 B집단의 경우 자국에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 습득한 뒤에 한국에서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하였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에 비해 거주기간이 짧은 편이고 아직 한국 생활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만큼 관심과 호기심이 높다. 따라서 이 두 집단 구성원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두 집단의 응답자들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지자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한국 내 거주하는 가족 유무나 현재 동거인에 대해 확인하였다. A집단은 결혼이민자들을 제외하고는 혼자 거주하거나 응답하지 않았다. B집단의 경우 대다수의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며 같은 국가의 친구들과 방을

---

5)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도입취지에 따르면 재한외국인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KIIP로 표준화하고 이를 이수한 이민자에게는 국적취득 필기시험을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기회가 부여된다. (법무부 KIIP, <http://www.socinet.go.kr>, 검색일2018.01.14)

쓰고 있었고, 일부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B집단의 경우 학교생활이 끝나고 돌아가면 모국어를 사용하고 고향의 음식을 나누며 비교적 편안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었다. 때문에 외로움이 덜하고 외국 생활에서의 문제점들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 4.2 문화적응 스트레스

A집단 응답자의 경우 <표3>의 문항에서는 ‘①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⑤매우 그렇다’ 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응답자들은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모임 및 직장과 같은 사회적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에 긴장감을 보이거나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장기간 타국에 거주했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다.

<표 3 A집단의 스트레스 요인6>

번호	문항	점수				
		①	②	③	④	⑤
1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나를 괴롭힌다.	3	1	4	2	1
4	나는 한국말로 의사소통하려면 긴장된다.	3	2	2	3	1
14	한국 사람들이 내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할 때 마음이 상한다.	1	2	5	2	1
15	한국인이 불편하게 느껴져서 나는 주로 혼자 시간을 보낸다.	3	2	3	2	1
20	한국에서는 나와 같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차별 받는다.	1	5	1	2	1
23	나는 외모 때문에 부당하게 취급받는다.	2	4	3	1	1
25	나는 내 조국 사람들의 문제를 생각할 때	1	2	3	3	1

6) ‘점수’ 칸의 숫자는 응답자 수를 나타낸다.

	슬픔을 느낀다.					
30	나는 친척들을 남겨두고 떠나온 것이 슬프다	2	3	1	3	1

인터뷰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A4와 A5는 결혼과 국제이주가 동시에 일어나서 모국의 문화와 이주국의 문화에 대한 적응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있으며, 결혼생활에서의 불만이 모국의 그리움으로 이어진다고 답했다. 재외동포 A7의 경우 큰 불편함은 없으나 간혹 자신이 한국인도 중국인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라며 모호한 정체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경우가 이따금씩 있다고 했다. 취업을 목적으로 온 캄보디아인 A10과 베트남인 A11은 한국이 선진국이라 살기에는 대부분은 괜찮지만 가족과 고국에 돈을 보내기 때문에 높은 한국의 물가를 감당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응답했다.

<표 4 A집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특이사항>

번호	문항	점수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한국 음식에 적응하는 것이 불편하다.	6 (54%)	5 (45%)	1 (9%)	0	0
10	한국에서는 나에게 많은 기회들이 주어지지 않는다.	1 (9%)	6 (54%)	3 (27%)	1 (9%)	1 (9%)
19	나는 한국의 새로운 문화의 가치에 적응하느라 불편하다.	1 (9%)	7 (63%)	2 (18%)	1 (9%)	0
21	한국 사람들은 나에게 대한 미움을 행동으로 표현한다.	1 (9%)	7 (63%)	2 (18%)	1 (9%)	0
28	한국 사람들은 나에게 대한 미움을 말로 표현한다.	1 (9%)	6 (54%)	2 (18%)	1 (9%)	0

29	나는 내가 다른 생활방식으로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6 (54%)	0	1 (9%)	2 (18%)	1 (9%)
----	--	------------	---	-----------	------------	-----------

각 집단에서 50%이상의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확연히 차이가 있다. A집단의 경우 과반 수 이상의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표4>와 같다. 응답자들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한국 사회 내에서 동화되었기 때문에 큰 차별이나 불편함이 없이 잘 지내며 환경적인 차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A2, A3의 경우 결혼이민자이기는 연애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결혼 전에 충분히 한국에 대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왔으며, 자주 모국을 방문하기도 하고 가족들이 서로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불편한 것이 없다고 답했다. 그 외에도 인터뷰에서 이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부터 한국을 제 2의 고향이라 여기며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처음에는 날씨, 환경, 음식, 문화, 근무방식 등이 불편했으나 장기간 거주하면서 오히려 한국생활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녀들에게도 분명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표 5 B집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특이사항>

번호	문항	점수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한국말로 의사소통하려면 긴장된다.	0	2 (16%)	2 (16%)	8 (64%)	0
5	나는 친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사는 것이 슬프다.	2 (16%)	7 (56%)	3 (24%)	0	1 (8%)
12	한국으로 이주해 온 후	2	7	3	1	0

	나는 많은 압박들을 느낀다.	(16%)	(56%)	(24%)	(8%)	
18	나는 나의 조국과 그 곳 사람들이스럽다.	0	1 (8%)	7 (56%)	2 (16%)	2 (16%)
19	나는 한국의 새로운 문화의 가치에 적응하느라 불편하다.	2 (16%)	8 (64%)	2 (16%)	0	0
22	나는 나의 문화적 배경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의 나의 지위가 낮다고 느낀다.	3 (24%)	7 (56%)	1 (8%)	0	1 (8%)

B집단의 경우 특정 문항에서 50%이상을 차지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 이들 역시 한국어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에서 긴장을 경험했는데 그 이유는 교실환경에서 배운 정제된 한국어가 아닌 방언이나 신조어 등이 섞인 한국어에 대한 불편함과 발화에 대한 실수에 따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중 대부분은 현재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나 교환학생으로 학점 취득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또한 아직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에 대해 외로움도 있으나 독립된 생활로 인한 즐거움을 표현하였다.

A집단에 속한 캄보디아인이 외모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들은 한국에서의 생활에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특별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점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두 집단 모두 높은 언어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언어로 인한 긴장감을 보이는 것은 의외였다. 문화적응의 문제에서 이들은 익숙해지거나(A집단), 새로워서 즐겁다고(B집단) 생각하기 때문에 큰 불편함을 보이지 않았다.

이들은 인터뷰에서도 같은 동양 문화권이고, 치안이 좋은 편이며,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방송매체를 통해 많이 접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거나 힘들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A집단의 경우

한국에서 장기거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에서 기회가 된다면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했고, B집단의 경우 한국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크며 한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뒤에 취직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한국에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A집단의 경우 혼자 해결하거나, 주변의 한국인 지인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경우가 많았지만 B집단의 경우 같은 나라 친구의 도움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예: 큰 사고 등)에만 학교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 A집단은 한국에서 장기거주 하며 사회적 활동이나 모임이 구성되어 있지만 B집단은 같은 나라 또래집단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내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상황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이들이 한국에서 가장 불편하다고 느낀 점은 공통적으로 한국인의 시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색한 한국어 발음으로 이야기할 때나 모국어로 이야기할 때 한국인들이 쳐다보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 연구대상자들이 대부분 동양권으로 한국인과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으면 한국인들이 신경 쓰지 않다가도 입을 여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고 했다.

그리고 응답자들이 만난 한국인들은 한국어를 잘 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 특별한 차별을 하지는 않지만 한국어를 못 하면 차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다. 취업비자로 온 외국인이 취업과정에서 겪는 차별이나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수당에 대해 이야기하며 본인들은 문제가 없으나 한국어가 부족한 지인들이 겪는 부당함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또한 한국인들은 외국문화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하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중국인들의 경우 중국발 미세먼지와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문제에 예민해져있었다. 한국인들이 국내 언론을 통해 알게 된 정보만으로

중국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그건 정말 중국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를 느낀다고 이야기했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중국 전역의 문제가 아니라 베이징의 문제이다.’라며 현실적 상황에 대해 무지한 한국인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주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때 천천히 이야기해주고 말을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한국인들과 친해지고 싶은데 한국인들은 외국인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좀 더 한국인들과 교류를 원하는 마음을 드러내었다. 더불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편한 점도 있지만 버스의 급제동 같은 문제에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했다.

## 5. 결론

본 연구는 재한외국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동안 많은 문화적응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에 반해 비교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연구를 통해 체류외국인의 집단별로 가지는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해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 정리하자면 그동안 문화적응의 주요 요인으로 꼽은 사회적지지, 언어 구사 능력, 인구학적인 특성 가운데 인구학적인 특성을 중점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파악하였다. 먼저 사회적 지지와 언어 구사 능력이 유사한 두 집단에게 오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확인해보았더니 나이, 한국거주기간, (한국에 함께 거주하는)가족유무, 현재 동거인, 입국목적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높은 수준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언어적 상황에서는 긴장감을 가지는 것으로 보였다. 입국목적에 따라 스트레스의 상황이 달랐는데 취업비자로 생계 목적의 거주인 경우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나 외로움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유학·어학연수비자의 외국인인 경우 학업에 대한 성과와 관련된 압박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크게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움을 호소하지는 않고 있었다. 그것은 높은 한국어 구사 능력과 정서적 조력자들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유사거주환경(지역, 언어, 시간)에서도 입국목적에 따라 다른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두 집단을 나누어 연구를 하였으나 연구 대상자가 적고 대표성에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아울러 이들의 심리, 정서적인 측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렇지만 본 연구를 통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음을 인지하고 앞으로 재한외국인 연구에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보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귀성·황지인(2009). 재한 중국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 연구, <學生生活研究> 29호, 원광대학교 학생상담센터. 1쪽~25쪽.
- 김재은(2009).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적응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혜미·원서진·최선화(2011).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차별경험과

- 심리적 적응: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권 1호, 한국사회복지연구회. 117쪽~149쪽.
- 김희경(2010).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 유형분석, <여성연구> 78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19쪽~158쪽.
- 나임순(2006).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영리연구> 5권 2호, 한국비영리학회. 159쪽~197쪽.
- 박미숙·이미정(2014).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갈등원인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20권 3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149쪽~174쪽.
- 박종철·김영윤·이우영(1996).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7쪽~108쪽.
- 안준희·조정희(201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요인 분석: 충청남도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2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137쪽~176쪽.
- 이은정(2009). 한국어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른 문화 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홍직(2012).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웰니스학회지> 7권 3호, 한국웰니스학회. 129쪽~143쪽.
- 임은미·정성진·이수진(2010).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상담학연구> 11권 3호, 한국상담학회. 957쪽~973쪽.
- 최명민·이기영·김정진·최현미(2015). 다문화사회복지론. 학지사.
- 최태일(2001). 주한 외국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혜지(2009).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과 관련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권 1호, 한국사회복지학회. 163

쪽~194쪽.

한유경(2009). 재한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몽골 유학생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Berry, J.W.(1990). Psychology of acculturation. In J.Berman (Ed.), *Cross-cultural Perspective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pp.201-234).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Berry, J. W.& Sam, D.L (1997).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 *J. W. Berry, M.H Segal & C.Kagitcibasi(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um 3: Social Behavior and Applications*(2nd ed, 291-326). Needham Heights, MA: Allyn and Bacon.

Sandhu, D.S.& Asrababi, B.R (1994). Development of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 75, pp.435-448.

[부록]

## 설 문 지

안녕하세요?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질문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연구에 이용됩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응답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같은 체류외국인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이므로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결과는 학문적 목적에만 사용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의 한국생활에 성공을 기원하며, 본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문항들은 여러분이 성장했던 곳과는 다른 문화적 환경인 한국

에서 살게 되면서 겪고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각 문항과 관련된 여러분의 본인이 느끼는 ‘문화스트레스’를 점수로 표현해주세요.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순번	문항	점수				
		①	②	③	④	⑤
1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나를 괴롭힌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한국 음식에 적응하는 것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사회적 상황에서 다르게 취급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한국말로 의사소통하려면 긴장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친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사는 것이 슬프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개인적 안전에 두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데 주저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8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가족과 친구들을 남겨두고 떠나온데 죄책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0	한국에서는 나에게 많은 기회들이 주어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나의 조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열등하게 취급받는데 분노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2	한국으로 이주해 온 후 나는 많은 압박들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한국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4	한국 사람들이 내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할 때 마음이 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한국인이 불편하게 느껴져서 나는 주로 혼자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나의 문화적 배경 때문에 열등하게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7	한국 사람들은 내 문화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나의 조국과 그 곳 사람들이 그림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한국의 새로운 문화의 가치에 적응하느라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20	한국에서는 나와 같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차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21	한국 사람들은 나에게 대한 미움을 행동으로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나의 문화적 배경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의 나의 지위가 낮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외모 때문에 부당하게 취급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한국에서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내 조국 사람들의 문제를 생각할 때 슬픔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내가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나와 사귀려 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한국에 온 후, 두려움으로 인해 낮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8	한국 사람들은 나에게 대한 미움을 말로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내가 다른 생활방식으로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친척들을 남겨두고 떠난 것이 슬프다	①	②	③	④	⑤

<표 3 문화적응과정 스트레스 인터뷰 질문지>

순번	내용
1	한국 사람들과의 모임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모임인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예)언어교환모임,가족모임,종교모임,직장동료모임...
2	한국 사람들과 모임이 없다면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모임에 참석할 계획이 있나요?
3	같은 나라 사람들과의 모임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모임인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예)다문화센터친목모임,가족모임,직장동료모임,봉사활동모임...
4	한국에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도움을 받나요? 예)아플 때 같은 나라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다.
5	한국에 오기 전과 온 뒤의 느낌이 어떤가요?(한국문화, 사람, 생활, 환경....) 5-1. 한국에 오기 전 한국에 대한 생각: 5-2. 한국에 온 뒤 한국에 대한 생각:
6	앞으로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다면 살고 싶나요? 살고 싶다면 또는 살고 싶지 않다면 그 이유를 함께 적어주세요.
7	한국에서 가장 살기 힘들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8	그런 기분이 들 때 어떻게 극복하나요?
9	한국에 살면서 가장 불편한 점 두 가지를 적어주세요.
10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필자 소개

성 명 : 박혜인  
소 속 : 울산대학교 국제교류처  
전자우편 : hieni27@hanmail.net

투고일: 2018. 1. 24 / 심사일: 2018. 1. 31 / 심사완료일: 2018. 2. 8